

분과 7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2

사회 : 김세덕(오사카관광대학교)

코로나 팬더믹 이후 변화된 수업 양상에 대하여

-대면과 비대면 절충형 수업 실천 보고-

인성희(와세다대학교)

1. 들어가기

일본 도쿄에 소재하는 와세다대학에서는 Waseda vision 150¹⁾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대화형, 문제 발견·해결형 교육으로의 이행」을 내걸고 있다. 이 전략은 교실에서의 일방적 강의 주체 수업 형태에서 벗어나, 演習·세미나를 주체로 하는 학생 참가 대화형 교육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격, 온디맨드 수업 환경 정비, 교재 개발과 수업 형태 혁신 등을 장려하는 교육 정책이다. 그 일환으로 대학에서는 학내 LMS(학습 관리 시스템)를 사용한 수업 전략과 온디맨드 수업을 위한 영상 녹화 장려, 액티브러닝 워크숍, 신입 교사 교육 등을 실천하고 있다. 본 연구자 또한 액티브러닝 세미나에 참가하고 수업 실천 보고 등을 하며 교육 방법의 혁신을 위해 정진하여 왔으나, 코로나 19 이후의 원격 수업 대비를 위해서는 새롭고 다양한 대처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학내의 잦은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고, 학내 한국인 학생들을 TA 또는 LA로 고용하여 한국어 학습 지원을 받아가며 2020년, 2021년 2년간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상세 내용²⁾은 2021년 11월 본 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중)에서 발표한 바가 있으나, 본 발표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온라인으로만 실시했던 2021년 수업과, 2022년 이후 대면 수업 재개와 함께 온라인과 대면을 절충한 수업을 진행하며 실천한 수업 실천 내용에 대하여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들과 공유하며 향후 수업 방향을 정해 가고자 한다.

2. 온라인 수업에 대하여

2021년 11월 7일 제 12회 일본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는 ‘뉴노멀 시대의 한국어 교육의 혁신 전략’이라는 테마로 학술 대회를 열었다. 코로나 시대의 교육 현장에 대한 다양한 수업 전략과 현황이 보고되었고, ‘리모트 시대 일본의 한국어교육(ICT교육) 실태 및 개선점’이라는 테마로 라운드 테이블도 열려 고교와 대학, 민간교실에서의 교육적 노력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줌을 통한 온라인 학회로 진행되었다. 이 때 코로나 사태 속의 다양한 수업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박기영(2021:8)³⁾은 기조강연에서 비대면 수업에 대해 2020년 봄학기과 가을학기를 비교하여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초기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었으나, 그 후 오히려 비대면

1) Waseda vision150 <http://www.waseda.jp/keiei/vision150/project/index.html>

2) 印省熙(2021)

3) 일본어 문헌의 한국어 번역은 본고 저자에 의한 것이다.

수업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온라인 한국어 과정은 대면 수업이 일반화되는 시기가 되더라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수진(2021)에서도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대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었다’, ‘학습현황과 진도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복학습, 심화학습을 할 수 있었다’, ‘시간 및 비용이 절약되었다’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제 온라인 수업은 대학교육의 일상이 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온라인 수업은 강의실 기반의 전통적 대면교육과 대등하게 대학교육의 한 축으로 발전하고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柳朱燕(2021)은 온라인 수업에서 수업 평가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학습 효과가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수업에서는 시간 경과와 함께 자율 학습을 하지 않는 경향으로 바뀌었으며,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으로 ‘통신 트러블과 친구 부재’를 들고 있다. 김수진(2021)도 온라인 수업은 자발적이지 않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는데, 자기주도학습은 갑자기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타 학습자와의 경험과 지식의 공유나 교수의 코칭을 통해 더욱 촉진될 수 있으므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안내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설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김수진(2021)은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 교사, 일반 국민 모두 교과 지식 교육에 있어 원격수업보다 대면 수업이 더 유리하다고 인식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적들이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비상 사태에 있어서 펼쳐진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김강희(2020)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수업 환경에 따른 학습자 간 능력 격차 분석에서, 성적 향상도에 있어서는 대면 즉 오프라인 강의가 가장 높은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혼합 방식을 적용한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 편차가 가장 적어, 학습자 모두가 평균에 가까운 성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에 온라인 방식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적용할 경우, 오프라인 수업의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여 학습자에게 연습과 복습의 기회를 무한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수업의 한계인 상호작용 및 관리가 교실 수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현되어 보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블렌디드 러닝 수업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동료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모두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온라인과 대면을 절충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적이며, 본 연구자 또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의 일환으로서, 수업 전 영상을 통한 사전 학습을 의무화하는 플립드 러닝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본 수업 시간에 온라인 수업 또는 대면 수업을 실시하였는데 그러한 수업 실천 내용과 수업 과정 중에 보여진 학생들의 반응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수업 실천 보고

3.1. 코로나 속의 온라인 수업(2020-2021년)

본 연구자는 일본의 대학에서 제2외국어 과목인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 방침에 따라 모든 수업을 온라인(수업내용을 설명하는 영상 자료 시청 후 줌 수업에 참가하는 온디맨드와 실시간 화상 수업을 절충한 수업, 플립드 러닝⁴⁾)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印雀熙(2021)의 내용 중의 관련 부분을

4) Flipped learning, 거꾸로 수업, 逆転授業. 일본 대학실치기준에 따르면 1단위에 대해 45시간의 학습이 필요하다. 15주 90분 수업인 경우, 수업에서 90분, 수업 외에서 90분의 학습시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사전 학습은 수업 외 학습으로, 수업은 수업

발췌하여 보고하기로 하겠다.

3.1.1. 온라인 수업 예

(1) 수업 내용: 초급 수업의 예

수업용 LMS(Moodle)를 통한 사전 상제 안내, 매회 동영상 수업 자료 시청과 드릴 작성을 통한 사전 학습 후, Zoom 수업 참가의 혼합형 수업 전개. 수업시 또는 수업 후에 소테스트 실시, 과제 제출(과제로는 손으로 쓴 내용의 PDF 제출, 음성 녹음 제출). 과제에 대해 교사 또는 TA로부터 피드백 실시.

(2) 수업 사용 도구

단어 학습용 Quizlet, 웹판 크리커⁵⁾ (휴대폰 사용, 학내용)를 사용한 앙케이트 집계나 자유 기술, Moodle 디스커션 기능으로 전체 의견 공유, Zoom 투표 기능 사용, 구글 도큐먼트 사용 등등⁶⁾.

(3) 시험 방법과 평가

중간·기말 시험: 줌 상에서 Video on으로 참가하여, 쓰기 시험·Moodle 시험·音声 시험 실시.

평가는 출석, 수업 참가도, 과제 제출 현황과 함께 동영상 시청 자료, 소테스트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중간, 기말 시험보다 평상점의 비중을 높여 평가⁷⁾.

3.1.2.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 앙케이트 내용

(1) 온라인 수업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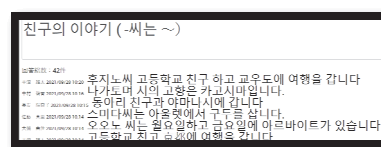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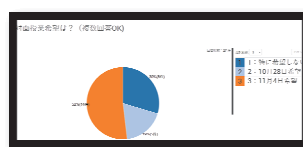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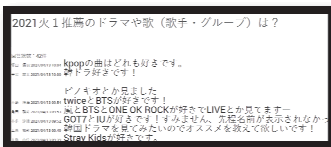
이동 시간의 유효 활용. 온디맨드 영상 시청으로 교육 효과 높았다. 온라인 수업에서 TA의 도움을 받아 좋았다. 소회 의실에서 거의 매번 다른 파트너와 대화해서 좋았다. 릴렉스한 상태로 수업을 들으며 조용한 곳에서 집중할 수 있었다.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큰 소리로 발음 연습할 수 있다. 줌으로 클래스메이트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줌의 채팅 기능으로 질문하기 편했다. 과제 피드백 좋았다 등등.

(2) 온라인 수업의 단점

통신 트러블. 개별 질문하기 어려움.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음에 따른 불안감. 친구가 생기지 않는다. 발음이 맞는 지 불안하다. 온디맨드 시청 등의 사전 학습 등 과제가 많다 등등.

전 학습(사전 학습)과 수업 참가, 수업 후 학습(과제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에게는 사전에 수업 내용을 개별적으로 학습한 후 수업에 참가하는 사전 학습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http://www.waseda.jp/navi/services/system/eclicker.html> 웹판 크리커 사용 예



6) 교사용 수업 연락 게시판으로 Slack사용.

7) 상급에서는 루브릭 평가제를 도입한 줌 회화 시험과 동료 평가(무들의 포럼 기능 사용)를 실시.

3.1.3. 온라인 수업에 대한 희망 간접 조사

2021년 7월 봄학기 말에 중급과 상급 수업⁸⁾에서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에 대한 장단점과 어느 쪽을 희망하는지 질문을 하게 하였는데 중급과 상급에서는 온라인 희망(27명, 42.2%), 대면 희망(33명, 51.6%), 어느 쪽도 괜찮다(4명, 6.3%)는 의견이 보였고, 온라인 수업에 이미 익숙한 상급자일수록 대면 수업을 희망하였다. 대면 수업 선택 이유로는 ‘친구를 만나서 함께 배우고 싶다’가 가장 많았고, 그 외로는 ‘집중 가능, 의욕 높아짐, 회화 가능, 발음이 염려됨’ 등의 이유가 있었다.

온라인 선호 이유로는 ‘집이 멀어서 이동 시간이 길데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만원 전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어 편하다’가 가장 많았고, ‘돈과 시간 절약, 반복 학습 가능, 큰 소리로 연습 가능, 코로나 감염 우려, 온라인으로도 수업이 재미있다, 자기 성격과 맞는다’ 등의 이유가 있었다.

3.1.4. 결론

2021년 온라인 수업 실시 결과, 온라인을 선호하는 학습자도 많았고 온라인 수업의 유용한 점이 다수 발견되어⁹⁾, 예전과 다른 없는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었으므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학습용 도구와 리소스를 활용하여 플립드 러닝 방식으로 온라인과 대면의 절충형 수업 등 다양한 수업 형식이 가능할 것이라 결론지었다.

3.2. 대면 수업과 온라인 절충형 수업(2022년)

3.2.1. 수업 방식

2022년에는 전체 수업 중 50프로 이상을 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 대면 수업으로 간주되는 일본 정부 지침에 따라 학내 방침은 50프로 이상을 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대면과 온라인(실시간 화상 수업 또는 온디맨드)에 대한 선택을 각 교사의 재량에 맡기는 방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2022년 1년간 코로나 유행 상황과 학생들의 귀성이 많은 시기, 수업 내용에 따라 개별 학습이 필요할 때나, 줌으로 초청 강연을 할 때 등에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여, 대면과 비대면을 절충한 수업을 실시하였다. 한 학기 15번의 수업 중 4번의 수업을 온라인(줌 또는 온디맨드)으로 진행하였다.

과거 2년간 온라인 수업만을 경험한 2022년 당시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은 2022년 대면으로 수업이 전환되자 초기에는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사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학생들의 코로나 감염 증가에 대비하고, 또한 비대면 수업으로 축적된 수업 자료와 수업 방식의 활용을 위해 네 번 중 한 번 정도로 비대면 수업을 절충하여 1년간 수업을 진행하였다.

8) 초급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9) 앞서 김수진(2021)의 지적처럼 자율 학습 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에서는 주변 학생이나 교사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아 학습 부족을 빠른 시기에 파악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뒤처지기 쉬운 경향도 보였다.

3.2.2. 학생 앙케이트 내용

3.2.2.1. 수업 희망 조사 결과

(1) 2022년 봄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 희망 조사

		온라인 희망	대면 희망	총수
초급	6월10일	27	10	37
	6월24일	10	14	37 ¹⁰⁾
중급	4월22일	17	14	31
	6월30일	8	21	29
상급	7월8일	8	4	12
합계		70(52.6%)	63(47.4%)	133

2022년 봄학기 초에는 온라인을 선호하던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대면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다른 수업이 대면이 많아진 것과,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 적어진 것 등의 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대면과 온라인의 선호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2) 2022년 가을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 희망 조사

	응답률		온라인 수업을 희망하는가?		(15회 중)온라인 수업의 횟수는?			
	총원	응답자	네	아니요	0회	1-4회	5-7회	전 수업
초급	120	109	90	19	12	72	23	2
중상급	24	14	9	5	1	11	2	0
상급	11	6	0	6	3	3	0	0
	155	129	99	30	16	86	25	2
	응답률	83.2%	76.7%	23.3%	12.4%	66.7%	19.4%	1.6%

2022년 가을 학기말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초급의 경우, 많은 학생이 온라인을 계속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온라인 수업의 횟수로는 1-4회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었다. 가을 학기에는 특히 상급자일수록 대면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많은 수업(한 학기에 10과목-12과목)을 수강하는 초급, 중급자와는 달리 상급자는 수강하는 과목이 적어 대면을 통해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경향이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10) 어느 쪽이라도 괜찮다, 13명

3.2.2.2. 수업 선호도 양케이트 내용

(1)대면 수업 선호 이유

친구들과 만날 수 있다. 새 친구를 사귄다. 친구와 얼굴 보고 얘기하며 교류할 수 있다. 선생님에게 질문하기 쉽다. 눈이 안 피곤하다. 학교에 가려고 일찍 일어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대면 수업이 있어서. 대면이 집중이 잘 된다.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 수업이 문제 없이 진행된다. 온라인이면 게을러진다. 음성이 끊긴다.

(2)온라인 수업 선호 이유

늦게 일어날 수 있다. 아침에 준비가 간단하다. 집에 있어서 편하다. 전철을 안 타도 된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수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을 볼 수 있다. 사회의실에서 새로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신선하다. 감염 우려가 없다. 선생님의 입 모양이 잘 보여서 발음을 알기 쉽다. 대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서 발음이 잘 안 들린다.

학생의 의견 중에는, 교실 수업에서 교사도 학생도 마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음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과, 얼굴을 알지 못해 친구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인상적이었고, 그에 비해 온라인에서는 마스크 없는 얼굴을 볼 수 있고, 입모양을 볼 수 있어 발음에 공부가 된다는 의견,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어서 안심이 된다는 의견이 워드 코로나 시대의 특징적인 의견이라 하겠다¹¹⁾.

3.2.3. 결론

2022년 초반 온라인 수업 실시 후에 이후 온라인 수업을 희망하는가에 대한 양케이트에서는 대면 수업이 재개되어 매일 등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온라인 수업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으나, 2학기에는 때때로 온라인을 실시해 주면 기분전환이 된다, 이른 아침 등교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다 등의 의견과 함께, 집중력이 떨어진다, 클래스메이트와 페어워크를 할 시간이 줄어 즐겁지 않다, 모를 때 쉽게 물어볼 수 없다. 다른 수업이 대면이라 어차피 등교해야 한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연휴 때나, 겨울 방학 전후 등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면 귀성길 이동이 편리하다, 초청 강연 등을 줌으로 실시하면 편리하다 등의 의견이 많은 경향이 보였다. 상기 의견을 토대로 2023년 봄학기 또한 14회(100분 수업) 중에 3번 정도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3.3. 포스트 코로나로 이행하면서(2023년 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초급에 대해서는 전 수업 내용에 대한 영상 설명 교재가 마련되었다. 2022년, 2023년 동일하게, 대면 수업 전에 영상 설명 내용을 개별 학습하고 대면 수업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 시청에 대해서는 LMS상에서 자동으로 카운트되고 있으며 영상 내용에 대해 수업 시 이해도를 확인하는 질문과 설명을 하며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2022년 학기말 양케이트¹²⁾에서는 사전 학습 내용이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었으나 각자의 페이스로 학

11) 또한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웹 수업 양케이트 자유기술란에는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 차례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어 좋았다’는 의견(23건 중, 12건)이 눈에 띄어 온라인 수업 실시에 대한 강한 희망도 엿볼 수 있었다.

습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로 대면 수업에서 확인하고, 대화와 드릴을 함으로써 정착이 되어감을 느꼈다는 앙케이트 결과가 나왔다. 또한 되풀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학습에 도움이 되어 복습할 때도 많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제점으로는 사전 학습 시간이 때에 따라 부담이 될 수가 있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과, 소수이기는 하나 영상이 없어도 수업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전 학습 영상 시청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예습과 복습이 되어 학습 효과가 높다고 답한 반면, 과제가 아니라 자율에 맡겼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사로서는 동일한 학습이나 문법 내용을 매번 새로이 설명하기보다 상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수업 시간을 이해도 확인과 아웃풋 등의 상호작용 중심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영상을 제대로 시청하였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이에 대한 과도한 수업에서의 재언급이 제대로 사전학습을 한 학생에게는 불필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찾아가는 것 또한 향후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3년 5월 현재 점점 마스크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여건으로 추이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은 많은 부분 대면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코로나 이전의 수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위해 만들어진 수업 설명 영상의 사전 학습 과제는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학교의 LMS를 사용한 수업 내용 알림, 과제 제출, 소테스트 실시 등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린트 배부가 현격히 줄었고, 전 교실에 교사용 PC가 설치되어, 수업에서는 슬라이드를 자료 제시 형태로 진행하며, 수업 자료를 학생들은 프린트, PC, 아이패드, 휴대폰 등으로 열람하며 수업을 듣고 있다.

많은 부분이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 학기 3번 정도의 온라인 수업, 줌 초청 강연, LMS의 적극 활용이라는 부분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겠고, 향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온라인 수업의 노하우를 대면 수업에서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나가며

전면 대면 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2023년 올해는 온라인 수업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각자의 페이스로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시간과 공간이 자유로운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살리고, 또한 부족하기 쉬운 상호작용의 활성화, 협업 등을 대면 수업을 통해 이루어가는 온라인과 대면의 절충형 수업 형태는 교육 효과도 높다고 하겠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온라인이 필수 또는 선호되는 상황이었고, 또 마스크 착용이라는 언어 학습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수업 그 자체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하겠다. 2023년 5월 8일부터 일본에서는 마스크 착용 자유화로 방역 기준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후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장점을 살려서 교육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업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수업 실천 보고가 교육 현장의 교육 방법론에 대한 모색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12) 사전 학습 영상 시청은 필요한가? 네(45.9%), 아니요(15.6%), 어느 쪽도 괜찮다(38.5%)

■ 참고문헌 ■

- 김강희(2020), 「대학교 교양 교과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수업 운영의 효과 및 한계 연구-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14, pp.239-149
- 김경분·조영은(2021), 「한국어 교육에서의 온라인 학습이라는 새로운 배움의 가능성」 第86回朝鮮語教育学会 (口頭発表)
- 김수진(2021), 「COVID-19로 인한 전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 『융합정보논문지』 11-7, pp.118-127
- 나승일(2015/2016),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교수법 가이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박기영(2021) 「(기조강연) New Normal시대 한국어 교육 현장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 第12回日本韓国語教育学会學術大會 (口頭発表)
- 서주원(2021), 「비대면 시대의 미주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31차 국제학술대회 주제강연(자료집 pp.3-11) (口頭発表)
- 인성희(2020), 「온라인 발표 수업 실천 사례 -일본 내 대학의 시사 한국어 수업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第11回日本韓国語教育学会 (口頭発表)
- 青木直子(2009), 「学習者オートノミー概論」 『授業がかわるCEFRと学習者オートノミー』 フランス日本語教師研修会pp.61-77
- 印省熙(2017), 「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の実践について」 第74回朝鮮語教育学会(口頭発表)
- 印省熙·Wei Zuo·徐映京·沈希津(2019), 「授業におけるTAの役割と活動について」 第6回朝鮮語教育学会·朝鮮語研究会合同大會 (口頭発表)
- 印省熙·沈希津·徐映京(2021), 「韓国語オンライン授業の事例-TAとLAの学修支援を含めて-」 第12回日本韓国語教育学会(口頭発表)
- 教育課程研究会(2016), 『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を考える』 東洋館出版社
- 田中博之(2016), 『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実践の手引き』 教育開発研究所
- 柳朱燕(2021), 「韓国語科目の受講生を対象としたオンライン授業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結果-対面授業との比較を中心に-」 第12回日本韓国語教育学会(口頭発表)
- Bachman, L. F. & Damböck, B. (2018), Language assessment for classroom teach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laire Frances·Sunghi In(2019), “Tips and Tools for Improving Learner Autonomy -Focusing on examples from Korean-” 『朝鮮語教育-理論と実践-』 14 朝鮮語教育学会 pp.73-92

(E-mail: insunghijp@hotmail.com)

표준 한국어 익힘책 의사소통1과 생활일본어 교과서의 삽화비교

이경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들어가기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익힘책 의사소통1 교과서와 중학교 일본어 교과서 생활일본어 교과서를 비교해 두 교과서에 실린 삽화가 각각 어떻게 활용되고 교육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교육과정을 통해 개발된 두 개의 교과서의 삽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찰 대상이 되는 한국어 교과서는 2017년 한국어(KSL) 교과서 기초연구를 토대로 개발된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익힘책 의사소통1》(2019개발, 마리북스)이다. 일본어 교과서는 2015년 교육과정으로 개정된 일본어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춰 제작된 《중학교의 생활일본어》(2018개발, 시사일본어사)이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익힘책 의사소통1》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및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체성과 한국어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교과서가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익힘책 의사소통1》인 것이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익힘책 의사소통1》은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고려한 모듈형 교재로 개별성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교과서 선정의 경우, 의사소통을 위한 교재 6개 중에서 기초과정인 의사소통1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익힘책 의사소통1》은 단계별로 학습한 내용을 연습할 수 있게 개발되었고 현장마다 지닌 특수성을 고려해 모듈화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익힘책 의사소통1》의 삽화는 시대의 흐름과 청소년 학습자의 기호에 맞춘 것으로 심플하면서도 알기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나름의 시도를 한 교과이다.

중학교 일본어 교과서인 《중학교의 생활일본어》는 현장에서 중학생이 문자에서부터 문법 문화까지도 학습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진 자료와 삽화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중학교의 생활일본어》는 의사소통 중심의 일본어 학습을 통하여 일본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의 생활일본어》는 문자에서부터 실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과서이다.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화 활동이 나선형 연계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언어와 문화의 연계 학습을 통하여 한일문화 차이를 이해하도록 2컷 만화를 활용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그 외에도 단원마다 다양한 사진과 삽화, 게임과 노래 등의 활동자료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한국과 일본문화의 차이, 졸업식과 입학식, 맞장구 방식, 의(한복과 기모노), 식(젓가락과 숟가락문화, 식사예절), 주(아파트와 맨션), 마츠리와 축제 등 한국과 일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 문화를 비교 설명하고 있다. 《중학교의 생활일본어》는 표지부터 일본문화가 지닌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으며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삽화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다. 즉, 학습자들이 흥미를 갖도록 다양한 문화 활동 등을 학습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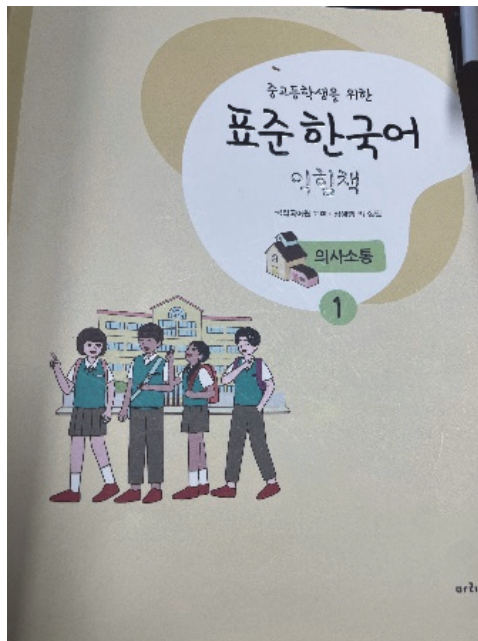
정에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 교과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익힘책 의사소통1》의 경우는 사진 자료는 전혀 없고 전부 삽화로 처리되어 있다. 삽화는 심플하면서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는 편이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익힘책 의사소통1》3과의 경우, 학습 목표, 어휘, 문법, 학습일지, 삽화를 보며 익히는 문화의 차이를 위한 이삭줍기가 있다.

일본어 교과서 《중학교의 생활일본어》 3과의 경우 도비라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기본표현과 문화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삽화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문화는 사진과 삽화 자료를 적절하게 섞어 사용하고 있어 이해하기 쉽다. 일러스트로 알아보는 한일문화 차이와 퀴즈로 알아보는 한일문화의 차이를 비교하며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과서 한국인 학습자의 일본어 교과서에 나타난 삽화의 전체상을 비교해 실제의 교육에 현장에 활용하고자 한다. 새로운 교육 방법인 자율 선택형 모듈 채택,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QR, 동영상 등을 적극 활용한 입체 한국어 교육 시도 『표준 한국어 익힘책 의사소통』 제1권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기르는 교재이므로 한국어 급수에 따라 1~4단계로 나누었고 학교생활과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한국어를 배우는 교재로 『표준 한국어 익힘책 의사소통』과 한국에서의 중학생이 배우는 외국어 『생활일본어』의 삽화를 비교분석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보이는 장단점과 개선할 점을 찾아내어 실제의 교재개발과 교육에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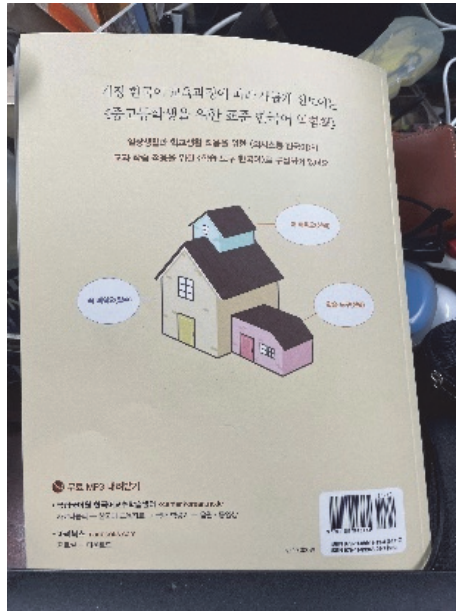
2. 『표준 한국어 익힘책 의사소통1』 분석

[표지 앞]



표지는 앞 다문화 학생의 4명이 학교 앞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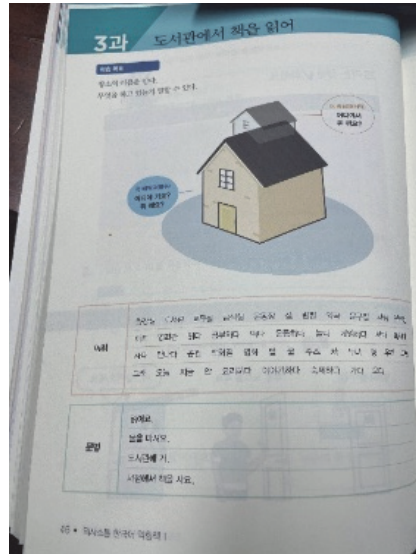
[표지 뒤]



표지 뒤는 메인 집(꼭 배워요, 필수)위에 2층집(더 배워요, 선택)그리고 메인 집 옆에 붙어있는 집(학습도구(선택))로 구성되어 있다. 정식으로 과로 들어가기 전에 P10-29에서 글자를 배우기 위해서 모음과 자음에 관한 글자와 삽화로 설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가확인, 자가확인표, 한글 모음과 자음, 자음단어 20개로 일러스트로 나타내고 있지만 [고기 두 쪽]이 무슨 고기 그림인지 불분명하다. [다리]라는 삽화에서도 다리인지 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지도]와 [호두]의 삽화도 명확하지 않게 표현되어 있다. 자음2에서는 8개의 단어 삽화로 나타내고 있지만 [치즈]가 빵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부는 잘려 있어서 불분명하다. 자음3에서는 10개의 단어 삽화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쓰레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쓰레기는 안보이고 쓰레기통만 그려져 있다. 이삭줍기에서는 가족이 웃는 소리 또는 웃는 모양으로 [하하 호호 허허 히히]를 입모양으로 나타내고 있다. 예비2의 한글에서는 모음과 자음, 그리고 받침이 있는 글자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삽화로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글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의 이삭줍기는 우는 소리 또는 그 모양으로 [응애 엉엉 흑흑]을 일러스트로 표현하고 있다. 1과에서는 인사와 자기소개로 이루어져 있다. 메인 집에는 [꼭 배워요(필수)] 이름이 뭐예요? 이고 [뒤의 작은 집]에는 더 배워요(선택)라는 표현으로 누구예요?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의 인사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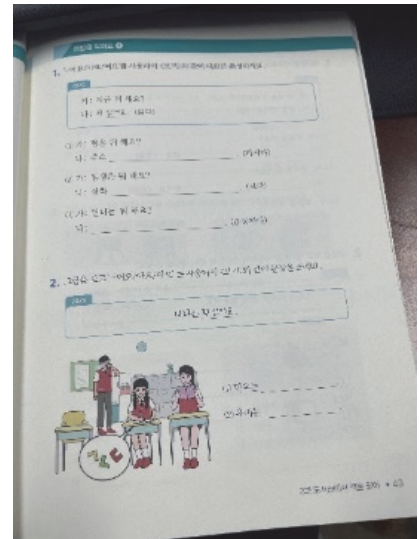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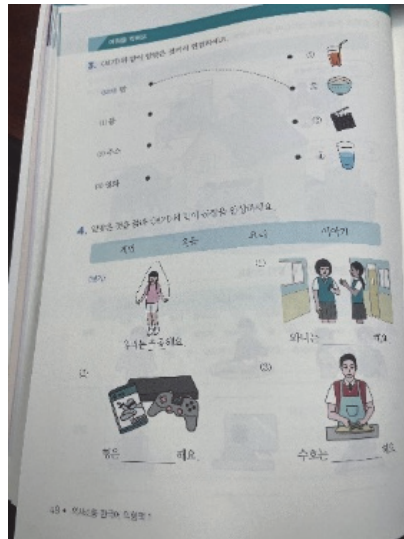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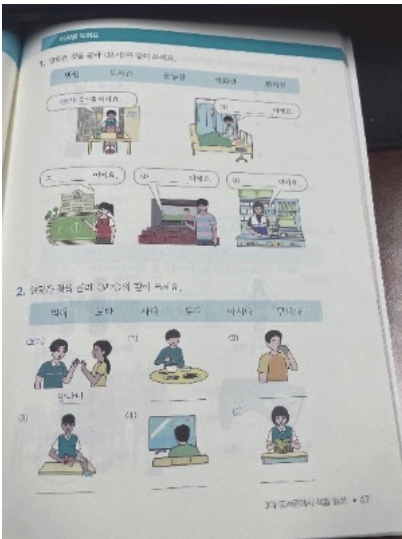
선생님과 학생 아침인사, 친구끼리 인사로 이루어져 있다. 선생님과 학생 귀가인사, 친구끼리 귀가인사, 어휘 서로 연결하기 이름 동생 친구 선생님, 보기에서 골라 문장 완성하기로 유치원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대학생의 글자와 삽화를 연결하는 것이다. [문법을 익히요]에서는 사람의 신체구조에 {이}에요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다. 반면에 문법 2에서는 '은' '는'을 사용하여 문장 완성하기로 중국(학생), 필리핀(중학생), 한국(선생님)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와 타인소개를 하고 있다. [문법4]에서는 부정문의 선생님과 학생대화이다. 여기에서 이삭줍기는 '안녕'이라는 헤어짐의 인사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3과를 예시로 살펴보면, 3과 주제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이다.

[도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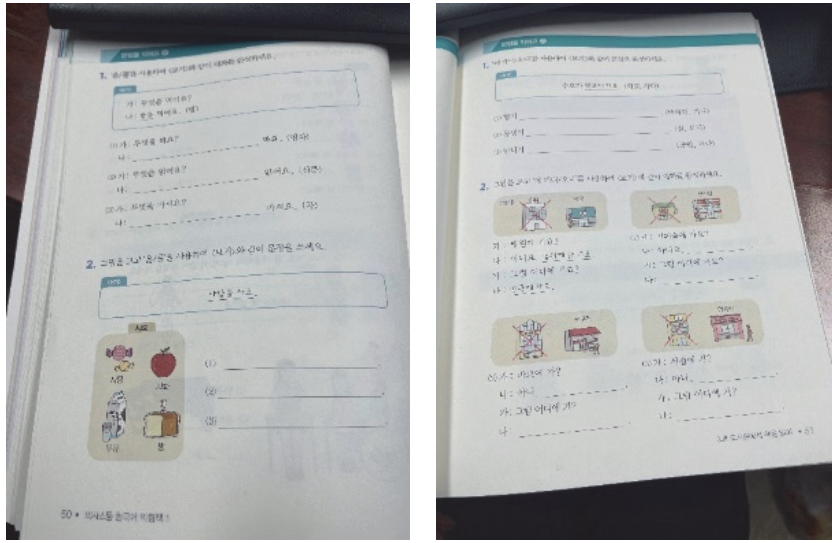
필수는 '어디에 가요? 뭐 해요?' 이고 선택은 '어디에서 뭐해요?' 이다.

[어휘를 익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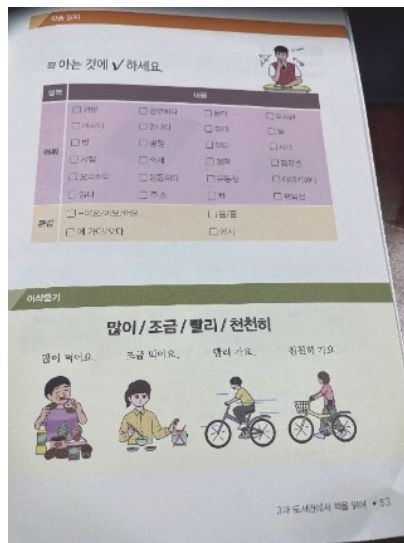
[어휘를 익혀요]에서는 명사와 동사 따로 분리해 나타내고 있다. 단순한 어휘 연결에서 벗어나 업그레이드된 문장속의 단어를 완성해 보는 연습을 한다.

[문법을 익혀요]



에서는 어요/아요/여요 사용해 문장 쓰기이다. `{을}과 {를}을` 사용하고 있다. 사탕 사과 우유 빵을 [사요]에 넣어 표현하는 것이다. 아니, 아니오 라는 말로 약국 편의점 문구점 영화관을 설명하고 있다. 학습일지가 있는데 삽화없이 그 과의 어휘와 문법 정리정도로 마치고 있다.

[이삭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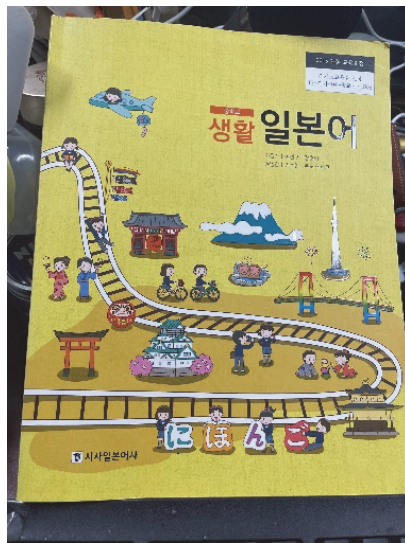
이삭줍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많이/조금/빨리/천천히 삽화이다. 많이 먹어요(빵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쿠키), 조금 먹어요 작은 양의 밥 반찬 2가지), 빨리 가요 자전거로 빨리 달리기, 천천히 가요 자전거 끌고가기로 그려내고 있다. 방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쿠키 등은 학생들의 건강도 생각하면서 그려낸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생긴다. 익힘책에서 재미있는 삽화는 이삭줍기 코너이다. 다른 과에서는 어떠한 삽화로 이루어 졌는지 살펴보면 4과의 '자전거로도 따르릉'에서는 '자동차도 버스가 빵빵'의 삽화이다. 5과에서는 푹푹뚫뚫 껌까까 시계소리, 6과에서는 쪽 안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밖으로 볼록하게 내미는 모양으로 새 신발이 마음에 쏙 들어요. (받은 선물 뜯어보며 하는 장면)과 신발이 잘 맞아요. 발이 쏙 들어가요. 신발 신어보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다. 7과에서는 꼬르륵과 후후이다. 이는 배가 고프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

아 배속이 끓는 소리와 입을 둥글게 오므려 내밀고 입김을 많이 자꾸 내뿜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이다. 예문과 삽화는 배가 고파요. 꼬르륵 소리가 나요(배고파 배움켜 잡고 있는 모양). 을 나타내고 있다. 8과 차례차례 (차례에 따라 하나씩 순서 있게) 버스를 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교삽화를 통하여 의미구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편협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 등이 다수 있다.

3. 『생활일본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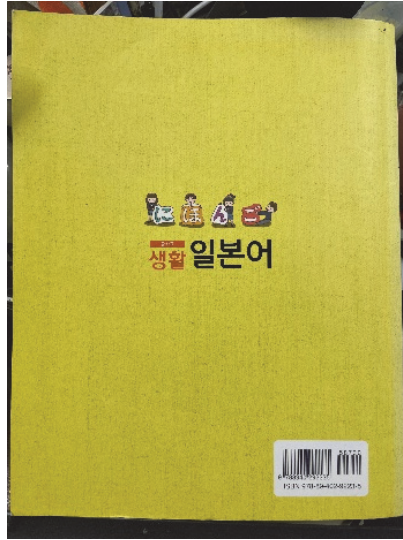
등장인물과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일본에 유학중인 중학생(기무라집에서 홈스테이체험중)이다.

[표지 앞]



앞 표지는 놀이공원에서의 나타내고 있는 놀이문화 여행 명소 등 다양한 모습을 일러스트로 나타내고 있다. 후지산,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 금각사, 도쿄의 스카이트리, 아사쿠사의 가미나리몬, 레인보우브릿지, 신사의 도리이, 일본풍 종소리 ‘후린, 자전거타기, 온천, 다양한 게임, 일본 전통 장난감 ‘겐다마’, 기모노, 유카타, 고이노보리 등이다. 겐다마는 그저 아무 의미없이 그려져 있고 장난감인지 모를 정도이다. 다루마 오코시라는 것은 중간의 레고를 하나씩 빼고 노는 놀이 중을 삽화로 나타내고 있다.

[표지 뒤]



뒤표지는 앞의 니혼고라는 글자의 사람을 가대로 이용해 활용하고 있다.

목차에 이어 교실 일본어 실제의 교실 삽화로 일본개관, 자연환경, 의식주, 전통문화, 동아리활동, 일본 문자(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이다. 1과는 글자 あいうえお이다. 학생들이 히라가나 글자 들고 있는 모습, 다양한 동아리활동 사진 히라가나 가타카나 글자, 사진과 글자 잉어 색칠하기 사진보고 히라가나쓰기 마지막 빙고게임, 히라가나로 일본지도 그리기 카드뒤집기 놀이, 탁음 반탁음 사진과 글자 쓰기, 인토네이션(억양)과 박, 컴퓨터 자판으로 단어 검색하기, 히라가나로 얼굴모양 그리기, 에도시대의 이모티콘 ‘헤노헤노모헤지’ 등이다. 생활일본어의 문화는 일본의 학교생활 1년간 다양한 동아리활동 사진과 삽화를 조화롭게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진과 일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일러스트로 알아보는 한 일문화 내용은 인상적이다. 3과를 예시로 살펴보면, 3과 주제는 [はじめまして(처음 뵙겠습니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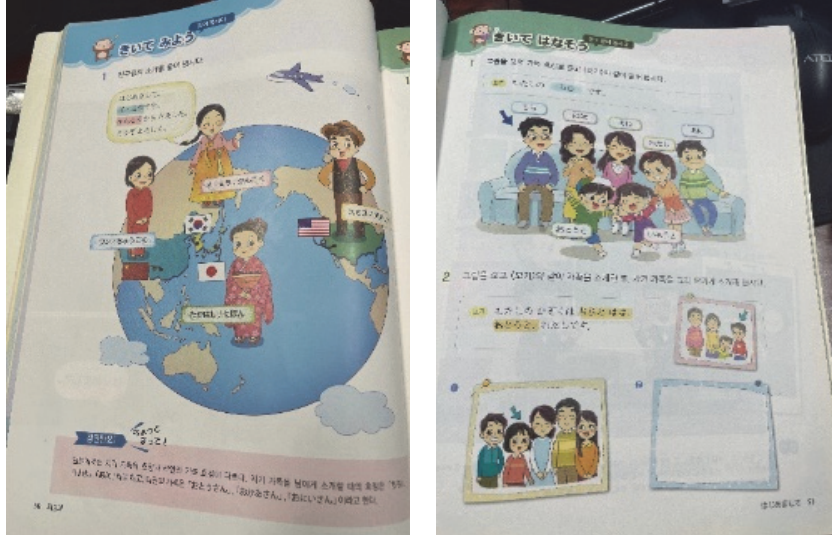
[도비라]



생활일본어 도비라는 일본의 중학교 현장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하는 장면의 사진을 오렸다. 등교하는 모

습 문화제 모습 등 작은 사진도 함께 실고 있다. 도비라에서의 일러스트는 교실과 교단 선생님과 학생이 소개하는 장면을 일러스트로 재현하고 있다.

[듣기와 들으며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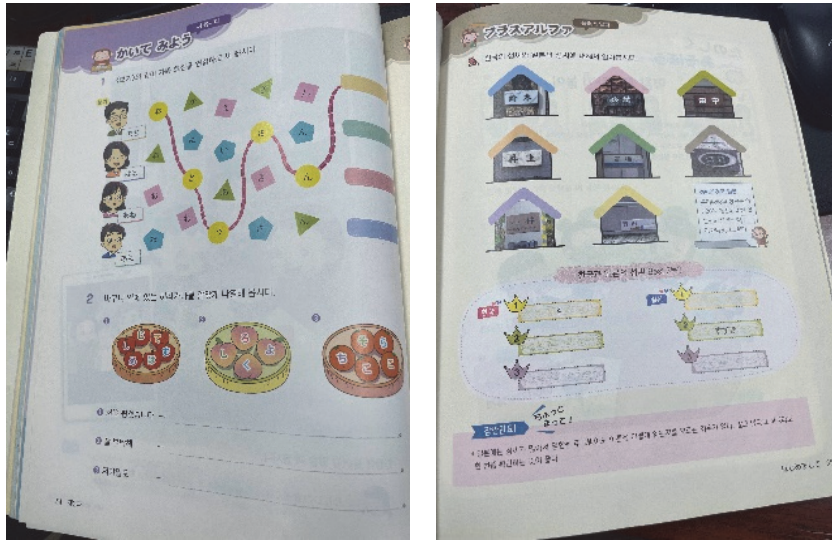
듣기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스위스 학생들이 자기 소개하는 삽화이다. 듣고 말하기에서는 가족 삽화가 나오고 가족 호칭을 일본어로 사람에게 알맞게 문장에 넣어 말하고 있다. 한 단계 더 나간 것은 가족소개를 하고 가족을 짝에게 소개하는 장면의 삽화이다.

[읽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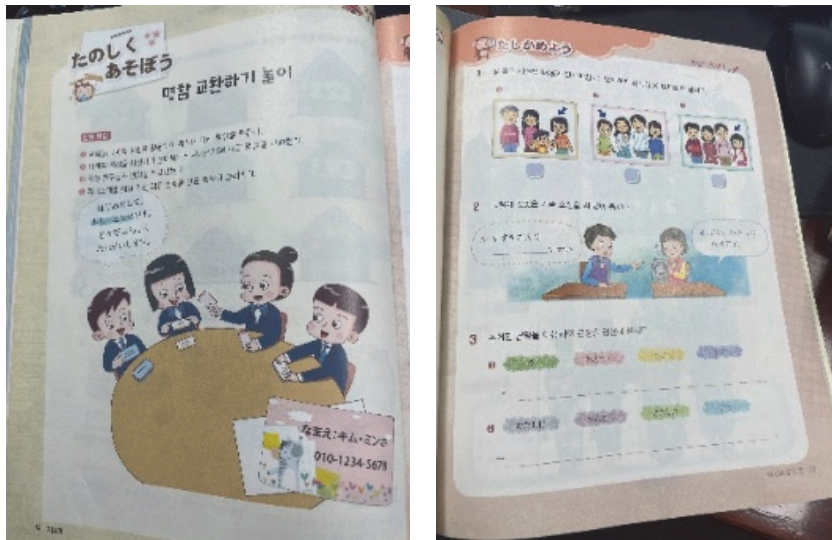
읽기자료에서는 만화 컷을 활용해 자기소개를 하고 사진을 보며 가족 소개를 하고 있다.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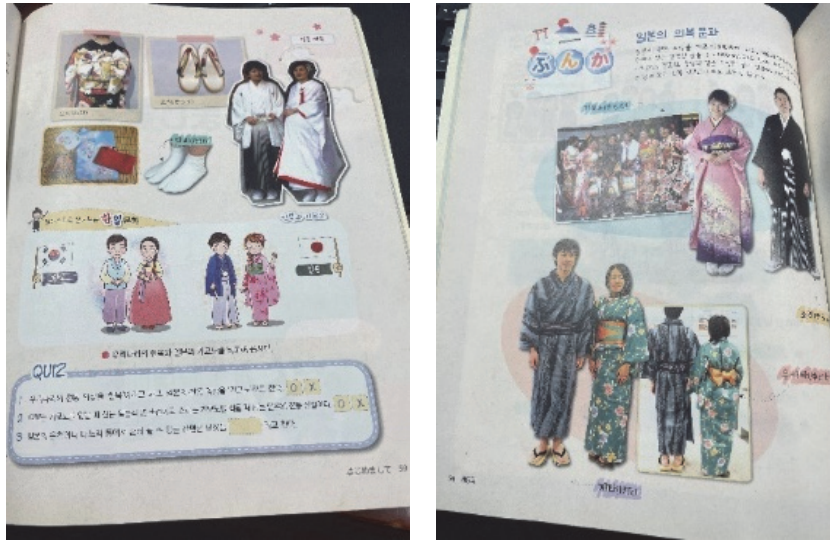
가족의 삽화를 글자를 찾아 연결하는 것이다. 바구니 안의 히라가나를 인사표현이 되게 나열하는 삽화이다. 성씨와 이름을 한국과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활동과 확인]



명함을 만들어 교환하는 놀이이다. 확인 학습을 3과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일러스트이다.

[문화]



문화는 실제의 의복문화 사진과 명칭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일러스트로 보는 한일문화코너에서는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 일본의 전통의상인 기모노의 차이를 삽화를 통하여 알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4. 삽화에 대한 검토

2019년 2월에 교육부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출간된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의 익힘책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는 구성에 따른 〈의사소통 한국어〉 1~4단계, 〈중학생 학습 도구〉 〈고등학생 학습 도구〉 총 6권으로 출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우는 〈의사소통 한국어〉는 한국어 급수에 따라 1~4단계로 구성, 〈학습 도구 한국어〉는 학교생활과 교과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재인 만큼 중학생용, 고등학생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이다. 새로운 교육 방법인 자율 선택형 모듈 채택,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QR, 동영상 등을 적극 활용한 입체 한국어 교육 시도 우리 사회에 다문화 배경을 가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재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특정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기 때문에 교재 집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한국문화와 언어를 잘 익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심플하게 고려되고 연구된 교과서로 사료된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교과서이어서 그런지 삽화는 매우 심플하고 사진 자료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어교육과정은 좀 늦게 시작되었고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어휘 문법 문화 등 표준화되거나 구체화되지 못한 감이 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익힘책》은 〈의사소통 한국어 익힘책〉 1~4단계중에 1단계만 조사 분석한 것이다. 〈의사소통 한국어〉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기르는 교재이므로 한국어 급수에 따라 1~4단계로 나누고 있지만 그 구분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율 선택형 모듈을 채택해서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교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또한 흥미 유발하는 QR, 동영상 등을 적극 활용한 시청각, 입체 한국어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삽화에 있어서는 너무 고민하지 않고 심플하게 그려낸 것이 아쉽다.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그러나 일본어의 생활 일본어와는 달리 흥미와 문화의 도입에는 적극적이지만 한 면이 있다. 심플하고 친숙한 삽화를 통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한국의 생활

과 문화에 적응하고 또래 학생들의 일상과도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고안한 방식으로 사료된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빨리 적응해야 친숙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필요한 방식이다. 일본어는 표지부터 일본의 다양한 문화의 도입, 앞부분의 일본개관 학교생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문자 수업도 사진과 적절한 삽화로 구성하고 있다. 생활일본어는 언어의 4기능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 문화 활동 정리 평가까지 골고루 삽화와 사진 자료를 잘 활용하고 있다. 특히 문화 부문에서는 실제의 사진 자료를 통하여 생생한 일본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상과 같이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익힘책 의사소통1과 중학교의 생활일본어에 나타난 구성을 포함한 삽화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어느 교과서가 좋고 어느 교과서가 나쁘다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지침에 따라 잘 구성된 교과서라 할 수 있다. 너무 심플한 익힘책 의사소통1 교과서의 삽화와 너무 상세한 생활일본어 교과서의 삽화 자료를 잘 조합한 중간적인 방식을 도입한다면 이상적인 교과서 삽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 이경수 외 『중학교 생활 일본어』 시사일본어사(2015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심혜령 외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익힘책 의사소통1』 마리북스(2017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李暉洙(2015)「高校教科書「日本語1」における日本文化:ダイアログへの学習文化の反映」『日本文化研究』54, 89~112쪽 東アジア日本學會

일본의 국가 수준 한국어 교육과정 논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진대연(선문대학교) · 요코무로 히토미(선문대학교)

1. 서론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자료를 근거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조선어 교과목 개설 학교 수는 중국어에 이어 2위로 335개교에 이른다. 이 숫자는 문부과학성이 1999년 발표한 자료와 비교하면 약 3배가 된 것이며, 일본 내 한국·조선어 개설 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문부과학성, 2022:14~15).

일본에서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여 30년 가까이 교수해 왔다. 그런데 정부에서 고시한 ‘학습지도요령’ 안에 ‘영어 이외의 외국어’에 대한 언급은 1~2쪽 정도밖에 내용이 없다. 일본 정부에서는 ‘영어와 같은 교육과정으로 가르치는 것’을 권장하는 입장이다.

이 발표는 일본 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을 정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한 후 다른 몇 나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국가 수준 한국어 교육과정 논의가 활성화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본의 한국어 교육 현황

2022년 기준으로 제2외국어를 채택하여 가르치는 개설 학교 수를 보면 중국어, 한국·조선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기타 순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1,190개 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중국어를 개설하는 학교 수는 457개, 한국어는 335개, 프랑스어는 182개 등이다. 학생 수는 중국어 17,847명, 한국·조선어 12,304명, 프랑스어 6,379명, 스페인어 2,533명, 독일어 2,276명, 기타 985명으로 총 42,324명이다(문부과학성, 2022:14~15).

국가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을 전제로 하며 주로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가 개설되는 고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이 장에서는 일본 내 한국어 교육의 전체 흐름을 비정규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잡아서 논의를 초점화하고자 한다.

2.1. 비정규 교육과정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 교육과정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시

간과 지면 관계로 매우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자 한다.

- 한글학교: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하는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https://study.korean.net/servlet/action.pds.DocuAction?p_menuCd=m40212)
- 세종학당: 한국 정부 주도로 세종학당과 한국문화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좌
(https://www.koreanculture.jp/korean/sejong_intro.php)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재일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아동부터 성인까지)
(<https://www.mindan.org/study.php>)
- 라디오와 TV: NHK에서 하는 라디오와 TV를 통한 한국어 교육
(<https://www.nhk.or.jp/gogaku/hangeul/>)
- 대면 또는 비대면 어학학원: ECC외어학원, NOVA 등에서 일본인 성인 학습자 또는 아동~고등학생까지 수강 가능한 강좌,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한국어 교실 증가
(<https://www.ecc.jp/korean/>)
- 기타: 개인 과외처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센터를 통하여 하는 한국어 강좌

2.2. 정규 교육과정

2021년에 수행된 ‘한국어교육현황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한국계 및 조총련계 민족학교의 모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하였고 둘째, 일본에서 소학교·중학교의 정식 수업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와 넷째, 전문직대학 및 전문단기대학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다섯째, 특별지원 학교에서도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학습 환경 및 조건이 다르다고 보고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일본에서는 4년제 대학, 단기대학, 전수학교 전문과정,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등 6종의 학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목을 선택해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하세가와 유키코 외, 2021:3~6).

이 발표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며 하세가와 유키토 외(2021)에서 제외하였던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계 학교’ 중 한국어 교육을 하는 학교까지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절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4가지 유형 즉 종합학과, 국제학과 계열, 기타 및 선택과목, 한국어과 및 코스 개설 학교로 나누어 볼 것이다. 그 전에 일본 정규교육 학교 계통도를 보이면 <그림 1>과 같다(지면 관계상 본문에서는 생략하고 PPT로 제시함).

2.3. 고등학교 교육과정

일본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또는 학과 및 코스의 필수과목으로 한국어가 존재한다. 학습지도요령(문부과학성, 2017)에서 한국어 관련 내용은 영어편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어를 통하여 언어나 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정보 및 사고방식 등을 적절하게 이해하거나 적절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능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한국어 교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교수 방법, 수업시간은 영어편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내용은 평가 부분 ‘대학공통시험’의 출제 범위에서 먼저 대상은 고등학교에서 4~5학점을 이수한 학습자, 기준(난이도)은 중급 수준이고 TOPIK의 3~4급 수준 ‘한글’능력검정시험(『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 3급에서 준2급, 범위는 고등학교에서 4~5학점을 3년 동안 학습한 학생의 숙달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라고 되어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지역 특성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학교의 정규 교과목으로 한국어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살펴볼 것이고, 그런 학교는 대부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을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3.1. 종합학과 사례: 도쿄도립세타가야종합고등학교

첫 번째 유형인 종합학과는 보통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인 ‘보통과’,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인 ‘전문학과’와 같은 층위로 1994년부터 도입이 되었다. 종합학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폭넓은 선택과목 중에서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배우는 것이 가능하고 학생의 개성을 살린 자기주도 학습 중시
- 장래의 직업 선택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인식을 깊게 하는 학습 중시 등

(https://www.mext.go.jp/a_menu/shotou/kaikaku/seido/04033101.htm)

종합학과의 사례로 도쿄도립세타가야종합고등학교(東京都立世田谷総合高等学校)가 있다. <그림 2>는 도쿄도립세타가야 종합고등학교의 2022년도 교육과정이다(지면 관계상 본문에서는 생략하고 PPT로 제시함). 여기에는 선택과목으로 2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총 4학점 이수가 가능하다.

2.3.2. 국제학과 계열 사례: 홋카이도도립삿포로국제고등학교 국제문화과

두 번째 유형은 국제학과 계열이 있는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이다. 국제학과에서는 국제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3년 동안의 학습을 통해서 이문화에 대한 이해와 외국어 사용 능력을 균형 있게 학습하도록 요구한다.

이 유형의 사례로 홋카이도도립삿포로국제고등학교 국제문화과(北海道札幌国際情報高等学校 国際文化科)가 있다. <그림 3>은 이 학과의 2022년의 교육과정인데(지면 관계상 본문에서는 생략하고 PPT로 제시함) 2학년부턴 필수적으로 제2외국어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 가능한 제2외국어는 한국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이다. 한국어 과목은 기초한글(基礎ハングル), 응용한글(応用ハングル) 2개가 있고, 학점은 각각 2학점씩 총 4학점 이수가 가능하다.

2.3.3. 기타 및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교 사례: 지바현립마츠도국제고등학교

세 번째로 기타 유형은 보통과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을 말한다. 이는 교과목이나 강좌로 학점 인정이 안 되는 방과 후 활동 과목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 사례로 지바현립마츠도국제고등학교(千葉県立松戸国際高等学校)가 있는데(이 학교에는 국제과도 있지만 보통과도 있음) <그림 4>는 201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지면 관계상 본문

에서는 생략하고 PPT로 제시함). 교육과정을 보면 보통과에서 국제교양과목으로 제2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이 학교는 한국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이수가 가능하다. 한국어는 한국어1(韓國語 I), 한국어2(韓國語 II) 총 2과목이 있고 각각 2학점, 총 4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2.3.4. 한국어학과 및 코스 개설학교 사례: 사립켄코쿠고등학교

네 번째 유형은 한국어학교 즉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학교를 말한다. 사례로는 사립켄코쿠고등학교(私立建国高等学校)가 있는데 이 학교는 한국계 국제학교의 유형에 속한다. 이 학교에서는 종합코스 안에서 더 많은 언어를 전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문화전공(韓國語文化專攻), 영미문화전공(英米文化專攻), 중국문화전공(中國文化專攻) 등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3가지 전공 모두 공통으로 한국어를 필수과목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림 5〉는 사립켄코쿠고등학교 종합코스의 2022년 교육과정이다(지면 관계상 본문에서는 생략하고 PPT로 제시함). 한국어문화전공은 3년 동안 한국어 과목 31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데 한국어1(韓國語 I), 한국어2(韓國語 II), 한국어회화(韓國語會話), 한국어소논문(韓國語小論文), 한국어프레젠테이션(韓國語プレゼンテーション), 한국사(韓國史), 재일형성사(在日形成史) 등의 과목이 있다.

또 다른 2개 전공/코스를 보면 영미문화전공(英米文化專攻)에서는 총 11학점, 한국어1(韓國語 I)과 재일형성사(在日形成史)를 이수해야 한다. 중국문화전공(中國文化專攻)에서는 총 16학점, 한국어1(韓國語 I)과 재일형성사(在日形成史), 한국사(韓國史)를 이수해야 한다. 보통과 특진코스(普通科 特進コース)에서는 총 12학점, 한국어1(韓國語 I), 재일형성사(在日形成史), 한국어프레젠테이션(韓國語プレゼンテーション)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3. 일본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검토

3.1. 한국어 교사 양성 측면

도쿄도의 한국어교육 상황을 조사한 미즈구치 케이코(2019:166)에 따르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한국어 교사 자격증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일본의 교사 자격증 유형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일본의 교육직원면허법에 따르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원은 학교의 종류 및 과목에 따라 교원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고 3종류 모두 신청에 따라 도도부현(都道府県) 교육위원회에서 부여한다.

〈표 1〉 일본 교원자격증 개요

유형	유효기간	유효범위	개요
보통면허증	10년	전국 학교	교사 면허증. 필요 자격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부여. 전수(專修), 1종, 2종(고등학교는 전수, 1종)이 있다. 전수(專修) 면허증은 석사과정 수료 정도로 1종면허 소지자가 취득 가능.
특별면허증	10년	부여를 받은 도도부현(都道府県) 내 학교	교사 면허증. 사회적인 경험을 포유(包有)한 자에게 교육직원 검정을 거쳐 부여. 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명 또는 고용하려는 자의 추천이 필요.

임시면허증	3년	부여를 받은 도도부현(都道府県) 내 학교	보조교사 면허증, 보통 면허증을 포유(包有)한 자를 고용을 못 하는 경우 에 한하여 교육직원 검정을 거쳐 부여.
-------	----	------------------------------	---

보통면허증은 대학의 교직과정에서 소정의 단위를 이수한 후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으로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어의 경우 문부과학성이 2022년에 발표한 ‘2022년도 고등학교에서의 국제교류 등의 상황에 대하여’에 따르면 현재 대학 기관에서 한국·조선어 교원 자격이 나오는 학교 수는 12개이다. 이중 중학교에서의 교원 자격도 취득이 가능한 학교는 6개이다. 사이버대학교 과정이나 온라인 과정은 없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영어 이외에 가장 많이 개설된 중국어는 대학 기관 등의 통학 과정이 있는 학교가 전국에 38군데, 사이버대학교 과정이 1군데이다. 문부과학성(2022)에 따르면 제2외국어 강좌 수는 중국어가 457개, 한국어가 335개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다. 개설 수업 수와 면허증 취득이 가능한 대학교 수를 비교하면 한국어 교사 면허증 취득이 가능한 대학교 수가 적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간단히 제안을 하면 첫째로 한국의 학부 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와 일본지방자치단체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역 특성상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지역도 많이 있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가교 역할을 해서 기관과 기관을 연결한다. 그 다음에 한국 대학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실습을 1년 정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 시스템으로 파견된 학부생은 일본 현지 공공기관에서 한국어교사 실습을 1년 동안 하면서 일본에서 필요한 능력을 양성하여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 정부기관 연결로 일본 현지 공공기관 교사(정규직)로 채용하는 시스템이다.

둘째도 비슷하지만 이는 한국 정부 주도형 한국어 교사 양성 코스의 구축이다. 이 과정은 한국 정부가 부여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한국어 교사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 정부의 취업프로그램의 한 유형으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현재 IT로 일본에 취업하는 정부 시스템은 있다. 그와 유사하게 한국어 교사 양성 취업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먼저 자격증이 없는 예비교사는 한국어 교사 자격 취득과정을 거친 다음에 본과정에 들어간다. 교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바로 과정에 들어간다. 여기에서는 1년 과정으로 먼저 일본어를 3개월 정도 일본에서 학원을 다니거나 한국에서 취업에 필요한 일본어 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9개월 동안 일본 현지에서 실습 및 일본 교사자격증의 필수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대학교 또는 전문대 과목 이수 및 현지 학교에서의 목적에 따른 실습 과정에 들어간다. 이를 통하여 일본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

3.2. 한국어 교재 사용 측면

교재는 외국어교육지원사업의 제2기 사업 때 한국어 교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주로 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때 개발된 교재인 『시작하자 한국·조선어(韓国·朝鮮語)』는 제4판까지 발간되었다. 그와 동시에 교수에 필요한 교구 개발도 이루어졌다. 『즐겁게 슬슬 외울 수 있는 한국어기본예문집(楽しくすらすら覚えらるる韓国語基本例集)』, 『한국어로 말하자! ~교류회를 즐기기 위한 대화집(韓国語で話そう! ~交流会を楽しむための会話集)』 등이 그것인데 개발된 교재를 사용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이는 홍보가 부족하거나 교재 사용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타케이 유이, 2019).

공익재단법인 국제문화포럼(2006)과 하세가와 유키코 외(2021)의 보고서에서 따르면 교재 관련 내용에서 학교마다 다양하게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제문화포럼(2006)을 보면 교사가 만든 활동지를 활용해서 수업한다는 대

답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표준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재의 ‘동질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없어서 다양한 교재 및 교육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에서 지향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숙달도 수준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어 교재는 비정규 교육과정이 정규 교육과정보다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목표 및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개인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관마다 또는 일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교재도 개발되어 있다. 일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교재로 『할 수 있는 한국어(できる韓国語)』가 있다. 이 교재를 쓰는 기관, 개인지도 교사가 많은데 교재 채택 이유로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어 일본 사람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어 전공자가 아닌 외국어로서의 일본어 전공자가 만든 것이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로 접근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새로운 교재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3. 한국어 평가 운영 측면

대학입학공통테스트에서 국립대학교 입학시험에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공통시험’은 대상이 고등학교에서 4~5학점을 이수한 학습자, 기준(난이도)은 중급 수준이고 TOPIK 3~4급 수준 ‘한글’능력검정시험(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 3급~준2급, 범위는 고등학교에서 4~5학점을 3년 동안 학습한 학생의 숙달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라고 되어 있다.

이 시험을 보는 학생은 매년 100~200명 정도이고 수험생 대부분이 한국어 모어 화자 및 조선학교를 거친 학생들이다. 그런 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일본인 학습자가 시험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설정한 범위의 목표까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결국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생기면 가르치는 내용이 구체화되고 그동안 ‘학습지도요령(안)’으로 제안된 한국어 교육과정을 기초로 해서 바로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이 표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 수준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외국어 전공자들이 환경을 조성해서 일본 정부에 계속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시험이 2022년부터 없어진다는 소문이 10여 년 전부터 있었지만 아직까지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이 나오에 따라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가 변화기에 접어들었다.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영어 말하기 시험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대학 입시는 명칭 자체가 지금까지의 ‘대학입시시험센터시험(大学入試試験センター試験)’에서 ‘대학입학시험공통시험(大学入学試験共通試験)’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시험 내용과 방법도 변경되었는데 특히 언어 영역만 보면 첫째, 영어 ‘reading(リーディング)’, ‘listening(リスニング)’의 배점이 동일하게 변경(reading: 100점, listening: 100점)되었고, 둘째, ‘listening’의 제3번 이하가 2번 듣기에서 1번 듣기로 변경되는 등 크게 2가지의 변경 사항이 있다.

4. 일본 이외 지역의 국가 수준 한국어 교육과정 예시

이 장에서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교육과정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본 이외 지역의 국가 수준 한국어 교육과정을 간략히 예시해 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국가 수준 한국어 교육과정 국제 비교 -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을 중심으로(진대연, 2023)」에서 발췌한 것이다.

4.1. 베트남

베트남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는 교육훈련부에서 발행한 ‘한국어 교육과정(2018)’이 있다. 2021년 2월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추가 선정되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명확한 교육과정 체계가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등학교부터 선택과목으로 가르치는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괄목표는 다음과 같다.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언어지식과 언어능력을 제공하여 초기 학생들이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외국어 평생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유럽공통참조기준을 변용한) 베트남용 6단계 외국어 능력 틀에 따라 학습자에게 2단계 수준의 일상 의사소통 상황에 맞는 기본적인 문법, 어휘 및 음운에 대한 기본적인 한국어 지식을 제공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4가지 기술을 통해 한국어를 독립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형성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신 있게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를 위해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 한국의 문화, 국가 및 사람에 대한 필수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평생 외국어 학습 습관과 흥미를 유발한다.

이상의 목표에 따라 베트남에서 중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시 베트남 외국어 능력 기준 3급 수준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한국, 한국인, 한국문화 등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그에 대한 좋은 감정과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더불어 베트남 초·중등 한국어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습자가 노동에 대한 의식과 책임, 자기의 취미와 능력에 맞는 진로 방향 설정과 직업 선택, 세계화와 국제 융합 시대의 적응 능력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자질과 핵심 역량을 형성하고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4.2. 태국

태국의 국가 수준 한국어 교육과정으로는 교육부·기초교육위원회에서 공표한 ‘한국어 학습 내용과 평가를 들 수 있다. 태국 주재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태국 교육부에서 제작, 배포한 한국어 교육과정은 이미 1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며 2023년을 기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교육과정은 한국의 고1~고3에 해당하는 중등학교 4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중학교 한국어 교육과정도 올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 중등학교 한국어 교육의 비전은 ‘한국어로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소통하기, 지식과 아이디어 및 태국 문화를 한국어를 사용해서 창의적으로 전달하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추가적인 학업과 경력을 위해 한국어를 사용해서 지식 탐구하기,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등 다섯 가지 요소로 설정되어 있고 이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국 중등학교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학습의 목적은 학습자가 언어를 사용하여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및 표현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는 한국어 원어민 화자의 이야기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태국의 사상과 문화를 한국어로 세계사회에 창의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어 학습교과목에서 기초교육 핵심 교육과정의 틀에 따른 한국어 학습의 본질은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언어와 문화, 언어와 다른 학습 과목과의 관계, 언어와 지역 사회 및 세계와의 관계’ 등으로 구성된다.

4.3. 여타 국가

한국어는 현재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제1외국어 또는 제2외국어로 채택되고 있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독일, 호주 등 서구권 국가에서도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지면 관계상 본문에서는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지만 PPT에서는 일부 내용을 다루기로 하겠다.

5. 결론

이 발표에서는 일본 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을 정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한 후 다른 몇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물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일본 사회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개 연구자가 적극적인 주문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본의 외국어 교육 정책이 변화된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일 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일본의 국가 수준 한국어 교육과정 논의가 활성화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그 필요성 몇 가지를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의 유입은 불가피하며 상호 이해와 공생을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이 중요하다.
- 일본의 제2외국어 교수, 학습, 평가의 개선 및 표준화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 한일/일한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참고문헌 ■

- 공익재단법인 국제문화포럼(2006), 일본의 학교에서의 한국조선어교육-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현황 및 과제.
 문부과학성(2017),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2017) 외국어편 영어편.
 문부과학성(2017),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2017).
 문부과학성(2022), 2022년 4월1일 현재 교원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
 문부과학성(2023), 고등학교 등에서 국제교류 등의 상황에 대해서 알립니다, 14~15쪽.
 문부과학성(2023), 교원자격개요.
 문부과학성(2023), 종합학과에 대하여.
 미즈카와 케이코(2019), 동경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상황-요청서 제출 후의 변화, 일반사단법인 일본외국어교육추진기구 (JACTFL).
 진대연(2023), 국가 수준 한국어 교육과정 국제 비교 -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5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8~37쪽.
 타케이 유이(2019), 다양한 외국어교육 추진에는 뭐가 필요할까 - 외국어교육지원사업에서 발견되는 과제와 전망1, 일반사단법인 일본외국어교육추진기구(JACTFL).
 하세가와 유키코 외(2021), 한국어교육현황조사 최종보고서, 조선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실태조사분과회.